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시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225-1 (053)250-3048~9 <http://www.daeguujubo.or.kr>



《초심(初心)》 허준석 안드레아, 봉곡성당
2013년 3월 영성사진 콘테스트 당선작 _ 사진설명 6면

† 오늘의 전례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1-33ㄱ,34-35 참조)

구약의 모든 계명을 요약하는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은 다만 한 줄입니다. 나이 어린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이것을 실천할 수 없고,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1독서 사도 14,21ㄴ-27 **제2독서** 묵시 21,1-5ㄴ **복음** 요한 13,31-33ㄱ,34-35

입당송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 드러내셨네. 알렐루야.

화답송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강진기 안드레아 신부 | 성의중고등학교 교목실장

학교에는 신앙을 가진 아이들보다 신앙을 가지지 않은 아이들이 훨씬 많고, 심지어 태어나서 신부를 처음 본 아이들도 많다. 그래서 신입생들은 늘 나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것이 많다.

“어떻게 신부님 되실 생각을 하셨어요?”

“왜 혼자 살아요?”

“혼자 살면 외롭지 않아요?”

“긴 옷(수단) 입으면 불편하지 않아요?”

이런 질문에 일일이 대답하는 게 귀찮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관심이라 생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한다. 처음엔 검은 수단을 입고 수업하는 나를 보고 경계하던 아이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편하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사제로서, 또 교사로서 보람을 느낀다.

작년엔 이런 일도 있었다. 개신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학생이었고, 장래희망이 ‘목사’인 친구가 있었다. 우연한 기회로 메일을 주고받게 되었는데, 처음 우리학교 왔을 때는 종교가 달라서 많이 불편했고, 특히 신부인 내가 하는 철학 수업을 싫어했다고 한다. 하지만 매주 수업을 들으면서 나에 대한 경계심과 의심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내 수업을 너무 기다리게 되었다면서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정

신적인 멘토가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일상적인 만남에서든, 교육 현장에서든 관계의 질을 높이려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 상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어떤 변화도 어떠한 발전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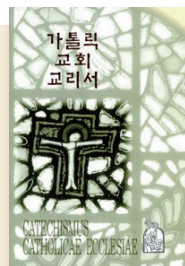
그런 의미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가장 좋은 사람, 더나가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일 것이다. 그리하여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의 연대를 이루고 그 안에서 더 큰 사랑의 결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자격이 있는 것이다. 사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도 바로 이것이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다른 사람이 감히 하지 못하는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 그 사람이 낯선 이방인이라면 더욱 더 – 에게 그리스도인으로써 가장 따뜻한 사랑의 미소를 한 번 건네주는 것은 어떨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골로 3:14**

신앙의 해 교리 퀴즈③



게시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하느님께서는 마치 친구를 대하듯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사람은 은총으로 이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계시에 대한 사람의 이 응답을 무엇이라 할까요?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의 2013년 세계 이민의 날 담화(요약)

믿음과 희망의 순례인 이주

많은 이민들의 마음속에서 믿음과 희망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민들은 더 나은 삶을 간절히 바라고, 흔히 기약 없는 미래에 대한 ‘절망’에서 벗어나 떠나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힘든 여정 중에도 많은 이민들은 하느님께서 당신 자녀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굳은 믿음으로 힘을 얻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실행의 아픔을 더 잘 견딜 수 있게 해 주고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희망도 줍니다. 이민들의 집 꾸러미는 믿음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희망으로 “현실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광범한 이주 분야에서 어머니다운 관심을 다방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교회는 이주가 종종 비극적이고 힘든 상황을 초래하면서 엄청난 가난과 고통을 수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로써 수많은 긴급 상황들을 해결하려는 원조 계획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를 위하여 개인과 단체, 자원 봉사 협회와 운동들, 본당과 교구의 기구들이 선의의 모든 사람과 협력하여 아낌없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교회는 이주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측면과 잠재력과 자원들을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과 망명자, 난민들이 새로운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완전히 동화되면서도 저마다 개인 생활에 본질적인 종교적 차원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돕고 지지하는 환대 계획과 센터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에 힘입어 바로 이 차원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쏟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임무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종교적 차원에서 관심을 쏟을 때에는 교회 일치 대화와 신생 공동체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톨릭 신자들을 향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사목 조직을 마련하고 다양한 예법들을 존중하여 그들이 지역 교회 공동체의 삶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인간 증진은 영적 친교와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민 여러분, 이번 세계 이민의 날을 맞이하여 여러분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새롭게 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주라는 순례 여정 동안 여러분이 받은 환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모습을 알아보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난관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여러분에게 베푸는 열린 호의와 환대를 보물처럼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확실한 희망과 위로의 표징이시며 우리의 ‘길잡이 별’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여러분 모두를 맡겨드립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의 어머니로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애정을 담아 교황 강복을 보내 드립니다.

2012년 10월 12일 바티칸에서
교황 베네딕토 16세



“()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느님께 인간이 인격적으로 온전히 귀의하는 것이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행위와 말씀을 통하여 당신 자신에 대해 밝혀 주신 계시를 지성과 의지로 따르는 것이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76항)

응모하실 때는 이 코너를 오려서 답을 적으시고 이름, 세례명, 소속본당을 함께 기재 후 교구 문화홍보실에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주소는 후보 1면 상단 참조)



약(藥)과 독(毒)

노광수 그레고리오 신부 | 도원성당 주임

사랑에는 종류도 많겠지만 모성애는 특별한 사랑이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도만 된다면 그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머니일 것이다. 이는 사랑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사랑 받을 일이다. 무릇 어머니로서의 헌신은 실로 눈물겨운 것으로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다. 자신은 걸어 다녀 발이 툭툭 붓게 되더라도 자식은 택시에 태워 학교에 보내는 일, 자신은 굶더라도 자식에게는 고기를 먹이는 일, 심지어 아내로서 남편에 대한 헌신은 자식의 그것에 비하면 현 신발짝이다. 출출하니 라면 하나 끓여 줄 수 없냐는 남편에게는 “피곤하니 직접 끓여 먹어라.”하고 말할 수는 있지만 학원으로 자식을 태우러 가는 일에는 새벽 2시라 하더라도 피곤해 하지 않더라.

그런데 자식을 위한 이런 헌신이 정말 자식을 위한 藥이 될까? 애뜻한 사랑으로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니 자식은 나중에 할 줄 아는 게 없다. 비가 오면 자식을 태우러 온 학부모들의 자동차 행렬로 학교 주변은 비좁기만 하다. 혹시 감기라도 걸릴까 하는 애뜻한 걱정 때문이다. 몸 상태가 어떠냐는 물음에 “통증은 좀 사라졌지만 열미를 하는 것처럼 어지럽다.”는 환자에게 자신은 “차멀미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떠한 상태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사가 말한다면? 자식도 언젠가는 부모가 될 텐데 감기도 한두 번쯤은 걸려봐야 자기 자식이 감기 걸렸을 때의 고통을 알 것이 아닌가? 비오는 날 이이를 걷게 하면 1) 자연에 대한 정서도 생길 것이고, 2) 비를 맞지 않는 지해도 생길 것이고, 3) 혹 감기의 고통도 알게 될 터인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경험이나 지해도 없게 되니 자연 창의력도 뒤편어지게 된다. 그 원인은 자식에 대한 지나친 사랑으로 인해 자식이 스스로 느끼고 배우고 깨쳐야 할 것을 부모가 다 막아버린 결과다. 지나친 사랑은 자식에게 藥이 아니라 毒이 된다는 것이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염려와 걱정으로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 어른으로서 할 줄 아는 게 없게 된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반대할 마음은 조금도 없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가 자식보다 더 오래 살아 자식이 죽을 때까지 온갖 뒷바라지를 다 해 줄 수 있음이 그것이다.

자식의 현재 고통에 안타까워하지 마라. 어차피 자신의 십자가는 스스로 지게 되어 있으므로 그 십자가를 지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하도 답답해서 “그렇게 사랑스런 딸도 나중에 산고의 고통은 겪어야 할 것인데 그것도 엄마가 대신 해주시죠?”하고 말했더니, 한 어머니가 웃으면서 말했다. “신부님, 저는 그러고 싶는데 제 사위가 거부할걸요?” 한 여자가 자기 아들을 남자로 만드는 데는 20년이 걸리고, 또 다른 여자가 그 남자를 바보로 만드는 데는 20분이 걸린다더라. 학교교육이 문제라지만 먼저 시정되어야 할 것은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시야이다. **필문**

어느 의사의 유언

어느 마을에 유명한 의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프면 모두 그를 찾아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환자의 얼굴과 걸음걸이만 봐도 어디가 아픈지 알아내 처방을 내리는 명의였습니다. 그런 그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임종을 앞둔 의사를 찾아가 그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보다 훨씬 훌륭한 의사 세 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의사는 바로 <음식>과 <수면>과 <운동>입니다. 음식은 위의 75%만 채우고 절대로 과식하지 마십시오. 12시 이전에 잠들고 해가 뜨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걷다 보면 웬만한 병 정도는 다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을 하던 의사가 힘들었는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말을 이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과 수면과 운동은 다음 세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전보다 더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육체와 더불어 영혼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사색>과 <기도>와 <사랑>입니다. 육체만 건강한 것은 반쪽짜리 건강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고루 건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사색>이란 약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평생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기도>란 약은 부작용이 없는 만병통치약입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많이 복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약은 비상 상비약입니다. 이 약은 수시로 복용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약입니다.” 의사는 자신이 먼저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준 후 평안한 모습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는 돈도 안 드는 이 약을 얼마나 섭취하고 있습니까?

금주의 성인



성녀 가타리나 (4월 29일)

여성으로서 첫 번째 교회 학자가 되신 가타리나 성녀께서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 시에나의 한 염색업자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려서 예수님의 발현을 보고 동정을 서원하신 성녀께서는 16세 때 도미니코 제3회에 입회하시어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시고 죄인들의 개종에 힘쓰셨습니다. 성녀께서는 1376년 당시 아비뇽에 있던 교황청을 로마로 돌아오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셨으며 수도생활의 쇄신과 교황권 수호에도 기여하셨습니다. 성녀

께서는 깊은 영성에 찬 글들을 많이 남기셨는데 신비적 체험을 기록한 <대화>를 비롯해 수많은 서한들이 전해진다. 성녀께서는 1461년에 시성되었으며 1970년에 바오로 6세 교황님에 의해 교회학자로 선포되었습니다.



■ 중국 수도회 장상 대구대교구 방문



중국 14개 수도회 장상 16명은 4월 18일(목) 대구대교구를 방문, 견학하고 교구장 대주교님을 예방하였다.

■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제단체장 연수



교구장 대주교님께서는 4월 19일(금) 오후 7시 30분 교구 평협 제단체장 연수(19일~20일)가 열린 사수동 베네딕도 영성관을 방문하시어 미사를 봉헌하셨다.

■ 대구가톨릭전통차연합회 창립미사



대구가톨릭전통차연합회에서는 4월 20일(토) 오전 11시 성북성당에서 교구장 대주교님을 모시고 창립미사를 봉헌하였다.

■ 성소주일 미사



교구장 대주교님께서는 4월 21일(일) 오전 11시 성모당에서 성소주일 미사를 집전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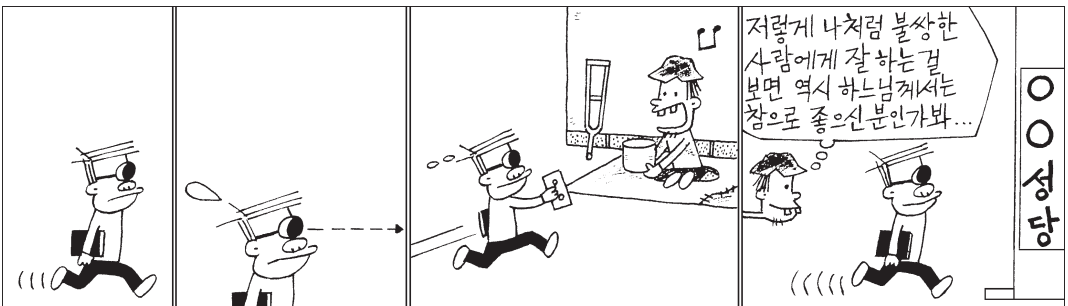
사진 제공: 월간 <빛>

○ 대구주보 '신앙의 해' 기념 영성사진 콘테스트 2013년 3월 당선작 선정 ○

- 최우수상 : 〈초심(初心)〉 허준석(안드레아) 봉곡성당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이 태어나는 형제자매들의 모습에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던 예수님을 봅니다. 세례를 받던 날, 첫 마음(初心) 그대로 신앙생활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 우 수 상 : 〈십자가의 길 11처〉 오석진(브루노) 범물성당
- 장 려 상 : 〈예수님의 삶 성화들〉 정지순(바오로) 만촌1동성당

내가 이웃에게 잘하면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세계 노동자의 날 기념 노동자미사
성모기사회 신심미사
푸른군대 첫 토요일 신심미사

5월 3일(금) 오후 7시
5월 4일(토) 오전 10시
5월 4일(토) 오전 11시

가톨릭근로자회관
프란치스코눔(월배성당 뒤)
성모당

성소 | 피정

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5.12(일) 14:00
장소: 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 본원
문의: (010)5449-3166

아프리카들꽃마을후원회 아가페 월피정

일시: 5.1(첫 수요일) 13:30
장소: 교구청 꾸르실료 교육관
내용: 미사, 강의
지도: 최영배(비오) 신부
문의: (010)4804-7574

2박 3일 무료 치유 피정

기간: 5.3(금) 18:00~5(일) 15:00
장소: 청주교구성령새신봉사회(무료숙식)
출발: 시민회관 13:00
성서홈플러스 13:40
문의: (043)213-9103 / (010)4006-6482

거룩한 독서 피정

가족피정: 5.4(토)~5(일)
4박 5일: 5.22(수)~26(일)
문의: 연화리피정의집 (054)973-4835

첫 토요일 성모 신심 피정

일시: 5.4(토) 10:00, 다사성당

주제: 성모님과 가족치유
일정: 미사, 면담, 고해성사
특강: 문봉한(아고보)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성소자 피정

일시: 5.5(일) 10:00~17:00, 골롬반 본부
대상: 해외선교사제에 관심있는 젊은이
문의: (010)6818-3737

오씨에(Oh! See-Jesus)젊은이 일일 피정

일시: 5.12(일) 10:00~18:00
장소: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바틀로 교육센터(대구 파동)
대상: 35세 미만의 미혼 남·여
신청: (010)5517-8833 / 1만 원

향심기도 심화 피정 및 소개 피정

심화피정: 5.16(목)~19(일)
소개피정: 5.17(금)~18(토)
8.15(목)~16(금)
문의: 씨튼 영성의 집
(041)733-2992~4

살레시오수녀회 젊은이 피정

기간: 5.17(금) 16:00~19(일) 14:00
장소: 전남 광주 피정의 집
대상: 미혼 여성 / 참가비: 4만 원
문의: (010)5354-5796

샬트르성바오로수녀원 불피정

1차: 5.11(토)~12(일) 16:00
2차: 5.25(토)~26(일) 16:00
주제: Porta Fidei (믿음의 문)
문의: (010)3803-8973

교육 | 모집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정기 세미나

일시: 5.2(목) 14:00
장소: 마산교구 성지여자고등학교 성당
주제: 교육 현장에서 만난 그리스도
대상: 교사, 학부모
문의: (02)460-7641

42차 아일랜드영국 영어연수 설명회

일시: 5.18(토) 14:00~15:00
장소: 남산성당
대상: 초·중·고·대학생·일반
주관: 마 신부님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제2회 국악성가 여름캠프

기간: 6.21(금)~23(일), 마감: 5.31(금)
장소: 하늘내 들꽃마을(전북 장수)
참가비: 18만 원(교재, 숙식포함)
문의: 예수고난회 국악성가연구소
(070)8875-8827

산양산삼8년근
뿌기 천제명홍삼
농축액골드(기획) ₩86,000
홍삼맥마일드 60포(1+1)
이옥이(실비아), 도석록(스테파노)
☎ 793-5325, 010-7744-5768

광안신 **이비인후과**
진료과목 - 성형외과 · 소아청소년과
의학박사/원장 신재훈(루카), 광동석(아우구스티노)
코수술 전문병원 (축농증, 비염, 코골이, 코성형)
(1호선 성당역 3번 출구)
☎ (053)638-7582(치료빨리)
http://www.knose.com

이 원 의 료 기
혈압계 · 혈당계 · 휠체어 · 산소치료기
뜸 · 부항기 · 주열기 · 찜질기
체온계 · 욕창매트 · 환자용품 · 안마기
실버카 · 보호대 · 글루코시민 · 오메가3
변상범(도미니코), 김인숙(아나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 (053)256-2512(대표), 2513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안심내과
〈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
내과 전문의 6인 진료 765-3771
심장 · 순환기, 소화기 · 내시경 전문
공단검진, 5대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이상계(바오로), 김영석(베드로), 김지영(대건안드레아)
들안길 네거리 ~ 황금성당 사이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전문의를 · 원장 정순우(요셉)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어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6번 출구)

상위 1%의 꿈, 학습무기를 준비하라
UP 학습코칭
(동기, 공부방법, 노트필기, 교과서적용, 학습플래너)
학습코칭반 / 글분석반 / 다중지능검사
☎ 752-0966 (윤종선 가빌로)
수성구청역 2번 출구 KBS 앞

미소인치과
원장 이 종 현(프란치스코)
송 선 희(안나)
지하철 범어역 4번 출구
전화상담 053)752-7575 **회원**
www.misoindental.com **약간진료**

강남 피아노
종합악기할인점
중고피아노 고가 매입
조율, 운반, 수리, 매매
☎ 010-3541-8194
053)423-7009
김갑봉 스테파노 (교우님 우대)

청소년국 소식지

<Jesusclub Times> 발행

발송: 매월 셋째 주 금, 이메일 전송
내용: 교구 청소년 사목소식과 교리 자료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6
www.jesusclub.or.kr에 가입시 수신 가능

행사 | 모임

봄날의 산책 콘서트

일시: 5.12(일) 19:30~21:10
장소: 서구문화회관
문의: 가톨릭교로사회관 253-1313

2013 성령강림대축일기념 성령대회

일시: 5.25(토) 10:00~18:00
장소: 성김대건기념관, 대상: 일반
강사: 황창연(베네딕도) 신부
문의: (054)954-0951

교육 | 모임

18차 어머니학교 모집

일시: 5.16(목) 9:30~14:30부터
매주 목요일(5주간)
장소: 교구청 별관대화합실(신청비: 10만 원)
문의: 2대리구청 743-7010
봉사자 (010)6784-7773 / (010)3536-6143

정평위 '함께꿈' 월레미사 및 특강

일시: 5.8(수) 19:30, 1대리구청 강당
주제: 영원한 생명이여라(도병 스텐)
주최: 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25기 성요셉 아버지학교 개설 안내

일시: 5.25~(5주간, 매주 토) 15:00~2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대상: 초등학교 이상 자녀를 둔 아버지
신청비: 15만 원 / 문의: 641-5678

성모신심세미나(푸른군대)

기간: 5.8~6.19(매주 수) 14:00~17:00
장소: 교구청 꾸르실로 교육관
신청비: 1인 2만 5천 원
접수: 세나투스 사무실 250-3170
(010)2635-0534 / (010)8399-6681

대구시청소년수련원 필리핀 영어연수

기간: 7.21(일) 출발, 4주
대상: 초4~중3(신청순: 50명)
문의: 656-6655(ARS 4)
대학생 해외봉사·어학연수 모집 중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 봉사자 교육과정

기간: 6.10(월)~12(수) 9:00
장소: 대구가톨릭의과대학 마리아관 강당
신청: 6.3(월)까지, 3만 5천 원(중식 포함)
대구 505-10-129903-9 완화의료팀
문의: 완화의료팀 650-4557, 4438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기간: 6.15(토)~24(월) 9박 10일
장소: 이스라엘, 이탈리아 순례(410만 원)
기간: 6.18(화)~28(금) 10박 11일
장소: 이스라엘, 요르단 순례(390만 원)
문의: 428-5004 www.cttour.org

공개강좌 안내

일시: 5.3(금) 18:00(무료)
장소: 프란치스코기념(월배성당 뒤)
제목: 창조적 관계형성 워크숍
강사: 황광우(요셉) 신부

13학년도 후기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계절제) 신입생 모집
접수기간: 4.29(월)~5.20(월)
분야: 22개 전공, 교원자격증 발급
http://edu.cu.ac.kr 모집요강 참조
문의: 850-3505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채용 | 안내

교구청 관리국 회계과 직원(남) 채용

자격: 상경계 대졸자(한글, 엑셀, 더존 전산회계 가능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자필), 교적사본(심사 후 면접)
마감: 4.30(화) 17:00, 문의: 250-3005

교구법원 공시(253-9550)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정미선, 하영수

교구청 휴무

5.1(수) 근로자의 날인 관계로 쉽니다.

3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 프란치스코
중앙대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고),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우리 아이 첫보약은 원방한의원에서
원 방 한 의 원
前 대구가톨릭의대 교수
現 경북의대 가정의학과 외래교수
의학박사(전문의) · 한의사 : 이정현(요셉)
☎ 431-7100 달서구 월성푸르지오 옆
원더풀스파랜드 3층

국가등록업체 · 보증보험가입업체
노블코리아
미혼 남녀의 백년가약! **결혼**
미팅회수 채움이 아닌 성혼에 주력!
상담수료증 이수자인 사회복지사가 상담함.
053)639-8998 박영주(엘마) 박요안나
상인점 홀플러스 맞은편 / 범어동 경신교 입구

www.appleuro.com
에플비뇨기과
비뇨기과 원장 강 일(베드로)
전 문 의 이영국(안드레아)
전립선 클리닉(레이저수술, 암검진)
요로결석클리닉(24시간 채석)
범어네거리 애플타워 5층 TEL. 755-0888

스피치 토크의 가장 개성있게!
Speech.Kim 스피치킴
스피치킴 교육
리더십&발표력&자신감
스피치킴의 특별한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프리젠테이션, 입시·취업 면접, 화술·화법
대상: 유치부~성인
스피치킴 교육 본원(대백 프라자 옆) T.053)421-0213
NAVER 스피치킴 교육 김민지(사바나)

최후 · 관절 및 뇌 · 신경 전문클리닉
백 신경외과 의원
○요통, 좌골신경통, 목·허리디스크,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오십견, 근골격질환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손발 저림, 진전
원장/전문의 백운일(스테파노), 서영준(안드레아)
성당시장네거리 ☎ 053)628-4111

나가사키성지순례
5월08일~11일(3박4일)
순례경비 59만 5천원
성지순례를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을 구합니다.
●인원:0명 ●서류:이력서,자기소개서 ●당사 방문 후 면접
T. 053)253-3399
(주)성지여행 조철래(유스티노)